



우리 모두 지정면의 보물을 찾으러 떠나 볼까요? 이 교재와 함께 여행하고 나면, 아래의 보물들이 무엇인지 모두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보물 원주 흥법사지 진공대사탑비



우리나라에서 지정한 보물 제463호예요! 붙임딱지를 붙여 보세요.

두 번째 보물

내가 우리나라에 고구마를 들여왔어. 나는 누구일까?







세 번째 보물 성강

횡성에서 시작해 원주를 지나 서울 한강으로 흘러드는 강이에요. 붙임딱지를 붙여 사진을 완성해 보세요.



네 번째 보물



자연환경이 아름다워서 관광객이 많이 찾아와요. 사진 아래 초성을 보고 어디인지 적어 보세요.



출발~!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아래 빈칸을 채울 수 있을 거예요! 모두 함께 여행을 떠나 볼까요?



18쪽 빈칸의 첫 번째 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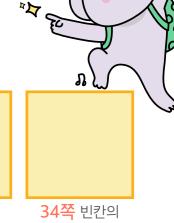
37쪽 ④빈칸의 세 번째 글자



28쪽 빈칸의 첫 번째 글자



33쪽 빈칸의



첫 번째 글자 세 번째 글자



마을 돌기

우리 마을 이름은 지정면입니다. 지정면은 전형적인 농촌이었는데 2004년 기업도시가 유치된 이후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정면의 사진을 보고 이야기를 나눠 보세요.

지정면이란

지향곡면과 정지안면의 첫 글자를 합친 이름입니다.







거울못공원

딴동구리소공원



뮤지엄 산



돼지문화

지정면은 농촌과 도시, 자연, 문화를 모두 즐길 수 있는 마을이에요.





지정면 중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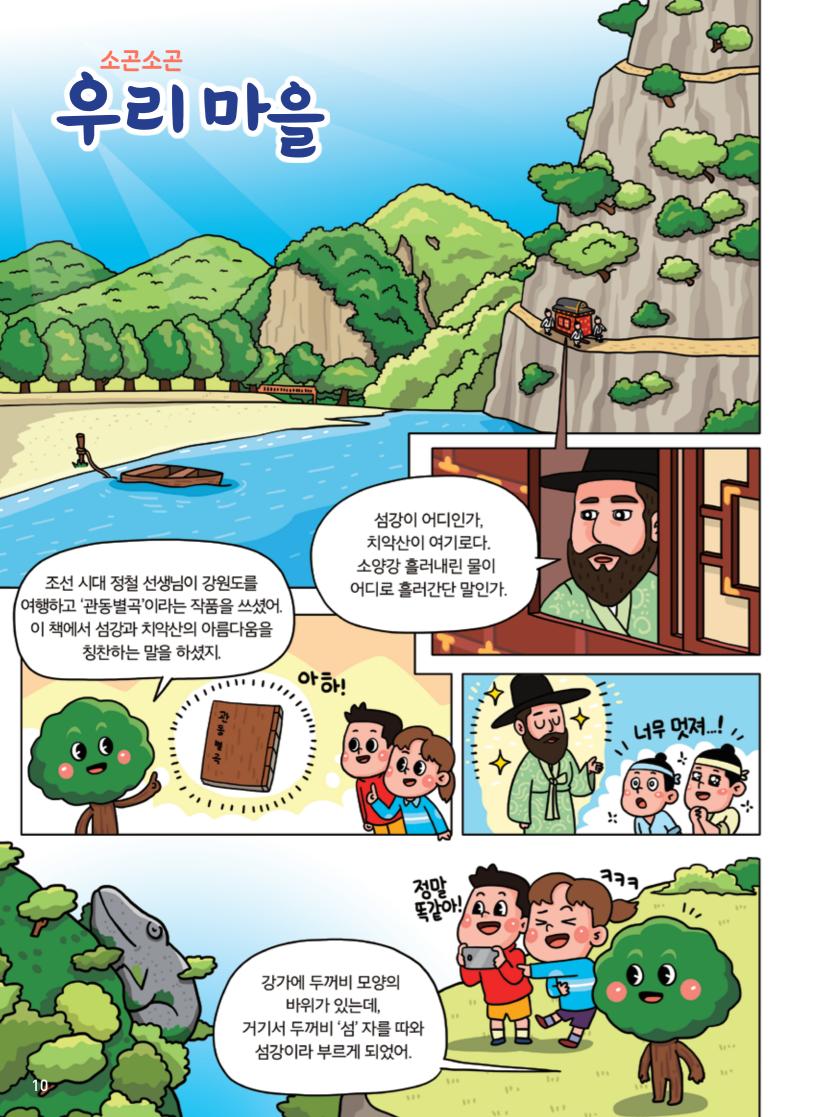


기업도시





' 무전



오형제바위 절벽 아래 '문연동천'이란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문연동천은 중국 태산에서 시작해 흐르는 산둥성의 강 이름 문수에서 따왔어. 동천은 하늘 아래 살기 좋은 계곡이라는 뜻이래.







고려 시대 때, 시신을 배에 싣고 강을 거슬러 오던 중 점말에 배가 닿자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대. 그래서 묘를 이곳에 쓸 수밖에 없었나 봐. 점말, 배터말이라는 이름은 그때부터 썼다고 해.

욕바우는 악명 높은 *벼슬아치가 임기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갈 때, 이 바위 위에서 주민들이 그동안 그가 했던 못된 일을 생각하며 욕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야.



원주시가 원주군이었을 때 '지향곡면'과 '정지안면'이라는 마을이 있었어. 1914년에 두 마을 이름의 앞 글자를 따서 마을 이름을 지정면으로 정하게 된 거야.



*벼슬아치: 관청에 나가서 나랏일을 맡아보는 사람.



지정면은 원주에서 신림면, 소초면 다음으로 넓어요. 축구장 125,350개가 들어갈 정도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이 있는 단계동이 축구장 580개 정도의 크기라고 하니 얼마나 넓은지 상상할 수 있겠죠?

지정면과 이웃한 마을은 어디일까요? 초성힌트를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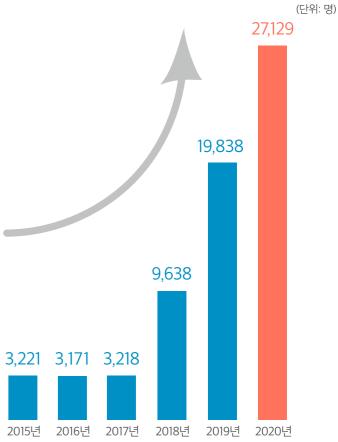
제천시



최근 기업도시가 지정면에 들어서면서, 인구가 급격히 늘어 24,000명 정도가 살게 되었어요. 2년 전에 3,000명 정도만 살던 것에 비해 무려 8배로 늘었죠.

그래서 이제는 원주에서 6번째로 많은 사람이 사는 동네라고 해요.





지정면은 원주 시내에서 가까운 편입니다. 원주시청에서 호저면의 만종역까지 차로 6분, 자전거로 20분 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정면 면적이 워낙 넓어서, 가장 먼 한솔오크밸리까지는 차로 30분이나 걸린다고 하네요.



충주시





옛이야기

옛날 우리 마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마을의 역사와 인물을 알아봅시다. 지금부터 시간 여행을 떠나 볼까요?

역사가 있는 마을

고려 시대 원주 흥법사지와 조선 시대 김제남신도비 등 원주의 역사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마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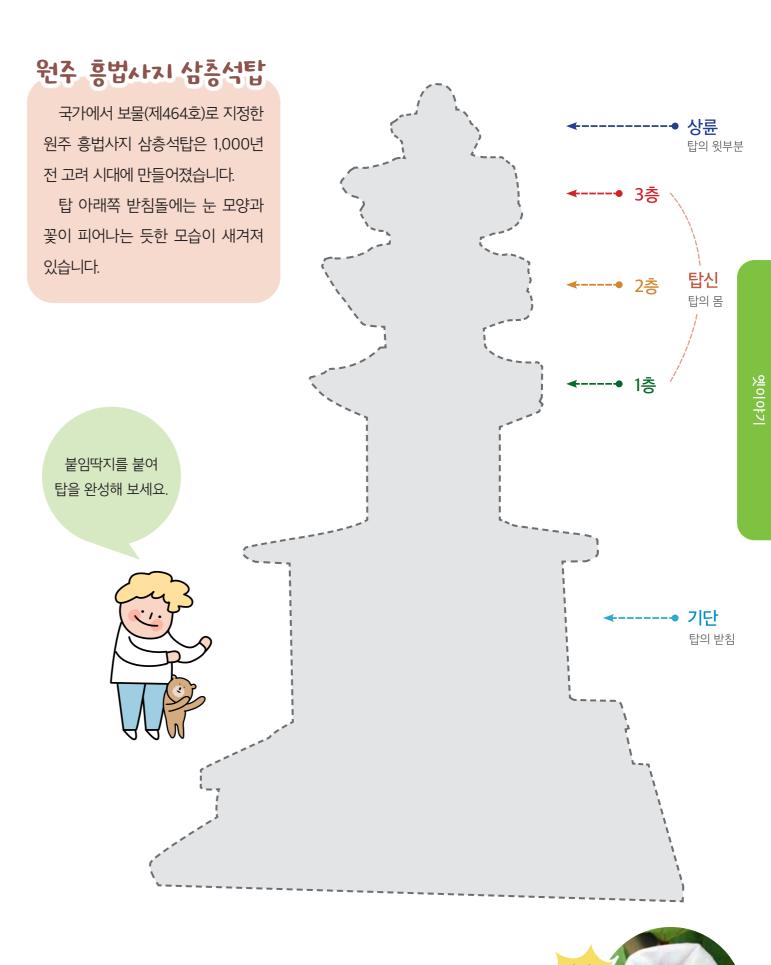
원주 흥법사지 진공대사탑비

원주 흥법사지

안창리 마을에는 흥법사라는 절이 있었습니다. 절터에 가면천년 전에 만들어진 삼층석합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나라의 '보물'(보물 제464호)로 정해 놓고 아주 중요하게 보호하고 있는 탑입니다. 그 옆에는 '진공대사'라는 스님을 기념하는 탑의 받침돌(보물제463호)도 있습니다. 이 멋진 받침돌을원주 흥법사지 진공대사탑비라고합니다. 거북이가 입에 여의주를 물고 있는 모습과 생동하는 용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 기록 『고려사』에 보면 937년에 왕(고려의 태조)의 선생님 역할을 하던 진공대사 충담스님이 돌아가신 다음 그분의 비석을 흥법사에 세웠다고합니다. 흥법사는 임진왜란 때불에 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삼층석탑 주변에 받농사를 짓고 있지만, 옛날에는 모두 흥법사의 공간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팔꽃처럼 생긴 나는 무슨 꽃일까요?

고구마로 백성을 구한 조엄



고구마는 멕시코에서 처음 재배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조선 시대 때 조엄 선생님이 들여왔지요.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일본에 다녀오실 때 대마도에서 가져오셨대요.

고구마는 초가을 밭에서 수확해서 겨울까지 먹어요.

먹을 것이 많지 않았던 옛날에는 배고픔을 달래 주는 중요한 작물이었지요.

그래서 고구마에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조엄 선생님의 마음이 담겨 있답니다.





에서 고구마가 처음 재배된 곳도 원주야?



아니. 처음엔 제주도랑 부산에서 심었대. 우리나라에서 고구마가 재배된 건 250년 정도 됐다고 해.



고구마가 배고픔을 달래 주던 작물이었으면 고구마가 들어온 이후에는 배고파서 죽고 그런 사람은 없어졌어?



1671년에는 심한 전염병과 배고픔으로 1년동안 100만 명이 넘게 죽었대. 그런데 고구마가 재배되면서 그 후에는 많이 줄었다고 해.



조엄 선생님이 나라를 구하셨구나. 우리 마을에 조엄 기념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조엄 기념관에 가면, 고구마를 들여온 과정을 자세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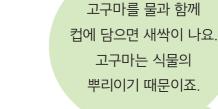
알 수 있어. 꼭 가 봐.





나는 지정면에서 핀 '고구마꽃'입니다. 쉽게 보기 어렵고 귀하기 때문에 '행운'이라는 꽃말이 붙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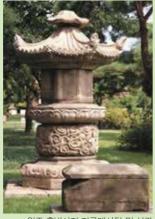
조엄(1719~1777)

조선 영조 때의 사람으로, 경제와 산업에 관심이 많았으며, 임금님을 도와 많은 업적을 남겼다고 합니다. 글쓰기를 좋아하여 많은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조상들의 문화 중에 후손들에게 물려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문화유산이라고 합니다. 우리 마을 문화유산을 알아보고 문제를 풀어 보세요.

고향이 그리운 문화유산

통일신라 말 스님 염거화상의 사리탑인 전 원주 흥법사지 염거화상탑(국보 제104 호), 진공대사의 사리를 모셔 놓은 탑과 그 옆에 놓여 있는 돌로 만든 함인 원주 흥법 사지 진공대사탑 및 석관(보물 제365호)은 흥법사지에 있던 것인데 지금 서울 국립중 앙박물관에 있어요.





전 원주 흥법사지 염거화상팀



원주 원충갑 묘역

간현리에는 고려 시대의 장군인 원충갑의 묘지가 있 어요. 원충갑 장군은 원래 평범한 선비였어요. 하지만 북 쪽의 원나라가 한반도를 침입해서 치악산의 영원산성을 포위하자 목숨을 걸고 싸웠지요. 합단적과 벌인 열 번의 전투에서 이겨, 우리 고장을 지켜 주었어요.

이희 묘역

이희는 원주 한산 이씨를 대표하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 이었어요. 강원관찰사, 이조판서, 예조판서를 지냈지요. 지정면 간현에 있는 이희의 묘역에는 묘비와 상석, 동자상, 망주석, 문인 석이 배치되어 있어요.



김제남신도비

흥법사지와 가까운 곳에는 조선 시대의 학자 김제남을 추모하고자 지은 건물인 의민공사우가 있어요. 김제남은 국가를 위해 일한 관료 였으며, 왕(선조)의 장인어른이기도 했죠. 의민공사우 근처에는 김제 남의 삶을 비석에 새겨 기록해 놓은 신도비가 있어요.



우리 마을에서 문화재가 가장 많은 곳은 어디일까요?



원주 흥법사지에 있는 탑은 몇 층일까요?

① 1층 ② 2층 ③ 3층

④ 4층 ⑤ 5층



원주 흥법사지 진공대사탑비에는 귀부(거북 모양을 한 비석의 받침돌)와 이수(귓불)가 있는데, 거북이가 입에 물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① 여의주 ② 피구공 ③ 물고기 ④ 스님 옷 ⑤ 나뭇가지



우리 마을의 문화유산을 모두 고르세요.

① 지정면행정복지센터 ② 원주 흥법사지 ③ 김제남신도비

④ 원주레일바이크 ⑤ 출렁다리





원주 흥법사지 삼층석탑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문화유산을 14쪽 지도를 보고 찾아보세요.



우리 마을 어르신께 듣는 옛날이야기



간현관광지는 원주 사람뿐 아니라 서울 사람에게도 유명한 곳이었어요. 공기 좋은 곳에서 마음껏 물놀이를 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곳이었거든요. 여름 휴가철이 되면 간현역에서 수백 명의 관광객이 내렸어요. 주민들은 서울 청량리에서 탄 사람의 70% 정도가 간현역에서 내렸다고 기억할 정도예요.

특히 서울에서 온 대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때는 자가용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간현역에 내려, 간현 시내에서 먹을거리를 사서 간현관광지까지 걸어왔답니다. 아예 서울에서 사서 오는 사람도 꽤 많았어요. 머리에 이고 양손에 들고 걷는 것이 힘들었을 텐데 대학생들은 굉장히 신난 모습이었지요. 늦은 밤에도 물놀이나, 모닥불놀이를 했어요. 대학생들이 노는 모습만 봐도 즐거웠죠.



이렇게 1년 동안 간현관광지를 찾은 사람들이 10만 명 정도나 됐다고 해요. 주로 봄, 여름, 가을에 사람이 많이 찾아왔고 잠을 잘 수 있는 민박집도 많았어요. 간현관광지를 많이 찾은 이유는 자연환경이 좋았기 때문이에요. 물도 맑고 백사장이 넓어서 물놀이하기가 정말 좋았거든요. 원주 시내에서도 여름에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죠. 물도 지금보다 훨씬 많았어요. 여름이면 물놀이를 하다가 한두 명씩 사고가 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안전사고를 대비해 안전 요원으로 봉사도 했죠.

1986년쯤인가 간현관광지 개발 사업이 시작되면서 관광 안내소도 생기고

길도 좋아지는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리 마을에는 오랫동안 주민들이 함께 살아왔어요. 사진을 잘 살펴보고, 옛날과 오늘날의 생활 모습 변화를 적어 보세요.

간현관광지에서 간현역으로 가는 길ol에요.





지정면사무소가 지정면행정복지센터가 되었어요.





기업도시가 들어섰어요.







옛날

오늘날

우리마을

초가지붕 우물

면사무소

학교

2인용 책상

나무로 된 마룻바닥 연탄난로

우리 집

가마솥 장작불로 한 요리 창호지를 바른 문



우리 이웃

우리 옆집에는 어떤 사람들이 사시는지 알고 있나요? 마을에 살면서 행복한 것은 이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을에는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알아볼까요?

다양한 이웃

지정면은 농부, 어부를 비롯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 마을을 위해 일하는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한 마을을 이루고 있습니다.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 마을의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빈칸에 적고 이야기를 나눠 보세요.



무엇이 좋을까?



지정면에 살면서 뭐가 제일 좋았어?

오후 4:05

시골이랑 도시 분위기를 다 느낄 수 있어서 좋더라. 논이랑 밭도 있고 간현관광지에 가서 물놀이도 할 수 있고, 재미있는 게 많잖아.



오후 4:05



여름엔 정말 물놀이가 최고지. 기업도시가 들어오고 나서 더 살기 좋아진 것 같아.

오후 4:06

맞아. 불편한 게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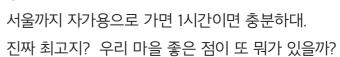
오후 4:06



그런데 기업도시는 왜 지정면에 생긴거지?

오후 4:07

우리 마을이 서울과 가깝고 교통이 편리해 사업하기 좋아서 생긴 것 같아.





오후 4:08





우리 동네

직업탐구

에는 원주 기업도시가 있습니다. 기업도시가 생기면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고, 다른 지역에 있던 많은 기업이 원주 로 이사 왔어요. 그러면서 우리 마을에는 다 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살게 되었지요.



우리 동네에서 볼 수 있는 직업들이야. 그림에서 찾아봐.







J배원



어부



지정면은 농촌과 도시가 잘 어우러진 마을이구나. 이 물건은 어디에 있을까?







레일바이크

의료기기



너는 커서 어떤 일을 하고 싶니?





섬강의 어부와 물고기





어부가 있다고? 우리 마을에는 바다가 없는데?



물고기 잡는 일을 하는 사람을 어부라고 하는데 바다에만 물고기가 있는 건 아니잖아. 섬강에도 물고기가 있으니 당연히 어부가 계시겠지.



그럼 그분들은 섬강에서 물고기를 잡는 거야?



지금 15명 정도 어부가 계셔.

이분들이 섬강을 일정한 구역으로 나눠서 각자 자기가 맡은 지역에서만 물고기를 잡아. 물고기만 잡는 게 아니라 섬강에 버려지는 쓰레기를 잠수해서 치우시기도 해. 물고기가 알을 낳는 산란기에는 잡지 않고 어린 새끼 물고기를 강물에 놓아주는 일도 하셔. 섬강의 생태계를 지키는 분들이시지.



와, 우리 섬강이 깨끗한 이유가 어부들 덕분이었구나. 어부는 누구나 할 수 있어?



아니야. 원주시에서 허락을 받아야 해.



자격증 같은 게 있는 거야?



아니, 생태계를 지키는 게 우선이니까 나라에서 정한 기준이 있어.



아, 그렇구나. 그런데 어떻게 잡으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 어떤 물고기가 사는지도 궁금하다.



주로 새벽에 물고기를 잡으셔. 낮에 잡으면 너무 더워서 물고기가 금방 죽는대. 섬강에 사는 물고기는 내가 설명해 줄게. 아래 설명을 보면서 이름을 쓰고 붙임딱지를 붙여 봐.



모래무지

몸의 옆에 8~9개 정도의 커다란 반점이 있다.

몸이 가늘고 길며, 머리가 납작하다. 입 주변에 5쌍의 수염이 있다.



붙임딱지를 붙여 보세요.

하천·호수 등 민물에 사는 조개류이며 먹을 수 있다.

민물조개

물이 맑고, 빠르게 흐르는 큰 강에 살며, 자갈 바닥에 알을 낳는다.

붙임딱지를 붙여 보세요.



마을살이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기관과 정보가 많아요. 우리 마을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우리에게 이름이 있듯이 마을에도 이름이 있습니다. 마을 이름에는 어떤 뜻이 있는지 알아보고 우리 마을을 주제로 그림책을 만들어 봅시다.



출렁다리





간현관광지에 출렁다리가 있다고 하던데?



응, 2018년에 생겼는데 땅에서 100m나 떠 있는 다리야. 걸어서 건너는 다리 중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어. 길이도 무려 200m나 되지. 학교 운동장 길이의 2배가 넘어. 스카이워크 전망대도 있어서 무척 신나고 재미있어.



난 간현관광지에 가서 물놀이만 했었는데. 가 봐야겠다. 산도 유명하다던데.



아하! 소금산! 작은 금강산이라고 해서 소금산인데 사계절이 아름다운 산이야. 간현관광지에는 정말 재밌는 게 많아.



MM

지정면의 공공기관



공공기관이란 주민 모두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세우거나 관리하는 곳을 말해요. 하는 일을 보고 빈 곳에 붙임딱지를 붙여 그림을 완성해 보세요.



원주지정우체국

우편물의 접수·운송·배달과 같은 우정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예금이나 보험 업무 등을 함께 수행하기도 한다.



mm







행정복지센터

지정면을 관리하고 주민 생활 업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이다.



원주소방서 지정119지역대

화재를 예방·진압하고 재난·재해 등의 위험한 상황에 처한 주민의 생명을 구 하기도 한다.





농업인상담소

농업 지식 전문 상담사가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곳이다. 지정면을 포함하여 원주 지역 9개 읍면에서 운영하고 있다.



산림항공본부

산림청 소속기관으로, 산불을 예방하고 산림 병해충을 제거하는 등 산림 보호에 앞장선다. 또한 산림 항공기 안전도 관리한다.









지정보건지소

2010년 건립되었으며, 지정면행정복지센터 옆에 있다. 예방접종을 하거나 간단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마을과 도로 이름의 의미



여러분이 살고 있는 마을과 지나다니는 도로 이름에는 모두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함께 살펴보고 지도에서 찾아 빈칸을 채워 보세요.



초등학교가 있는 마을은 어디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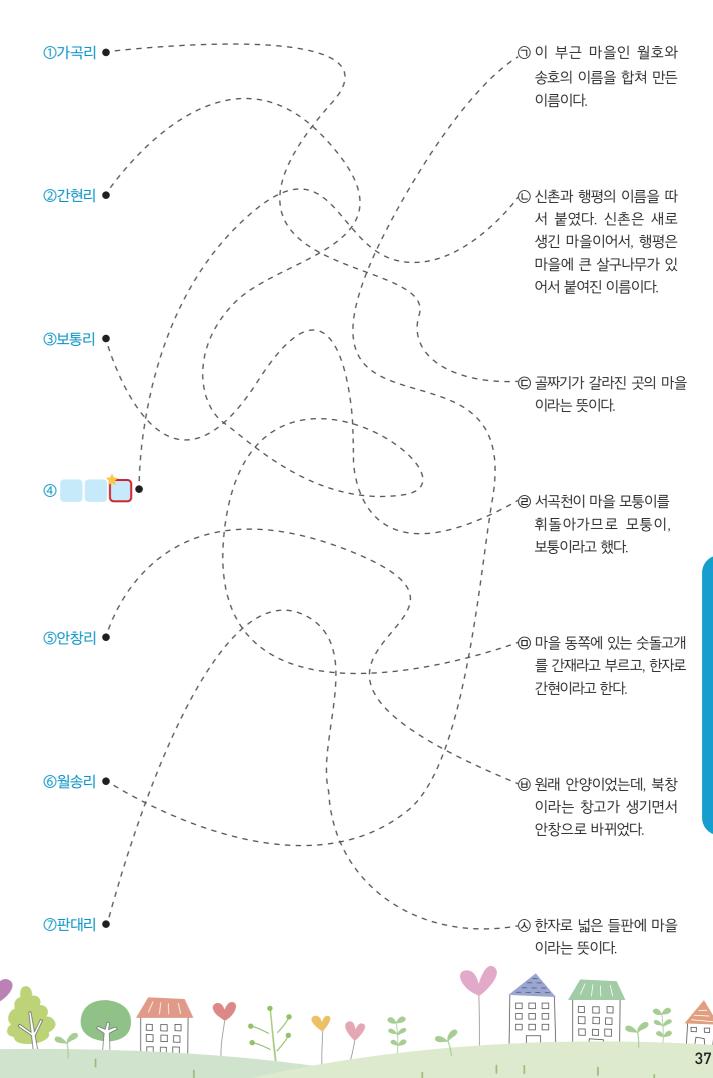
지정초등학교

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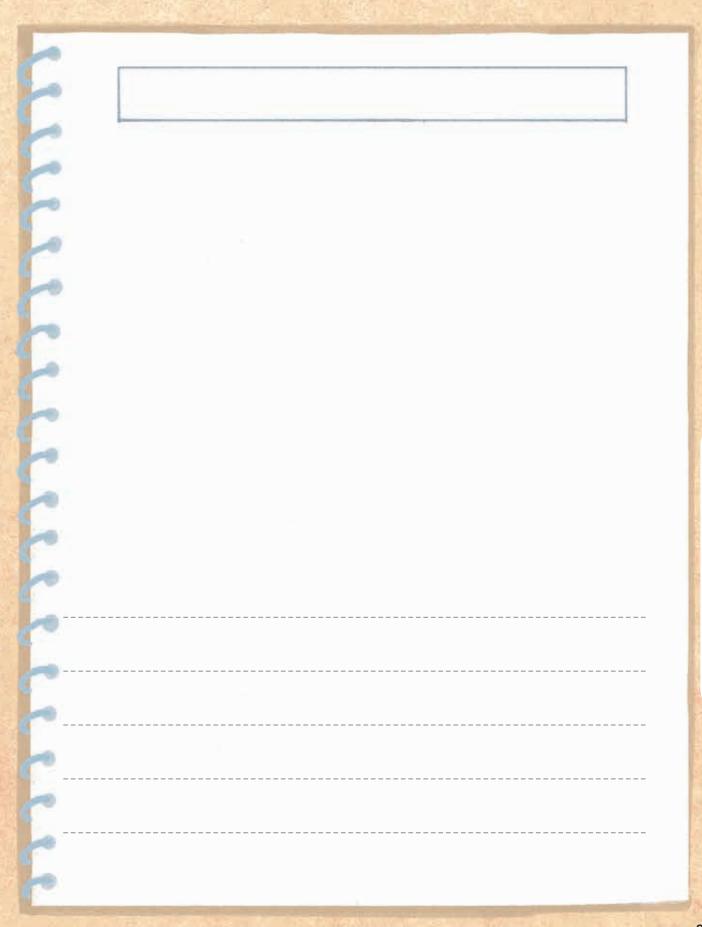
리 섬강초등학교

신평초등학교 리









마을살이

40





부	산	컴	미	레	콘	보	기	창	간
자	丑	iolo	마	술	활	치	차	생	현
해	보	업	법	스	경	양	녹	피	관
신	제	품	소	사	약	일	출	테	광
기	새	소	녀	검	지	렁	0	폰	지
엄	토	박	오	장	다	아	트	네	고
도	고	구	마	리	지	기	마	리	페
지	려	화	단	정	회	여	업	수	자
교	대	라	면	막	다	ၜ	丑	도	전
물	조	사	최	0	섬	강	우	영	시





지정면 옛이야기를 그림과 글로 표현해 보세요. 친구들과 합치면 지정면 그림책이 완성돼요.



이야기 순서	
	마을살이
	<u>o</u>

욕바위

'욕바위'는 지정면 안창리 덕가산 골짜기에 있습니다.

옛날, 이 마을에 살던 성격 급한 선비가 원주목사(지금의 원주시장)로 온 원님에게 못마땅한 감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별일 아닌 것으로 자신을 자꾸 불러 귀찮게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지요. 점점 화가 나고 억울했지만 원님에게 화를 낼 수가 없었고 결국 병이 났습니다. 가족들은 앓아누운 선비를 보고 마을에서 유명한 의원을 불렀어요. 의원은 마음의 병이니 속상한 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야 한다며 별다른 처방을 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선비는 몸이 점점 더 안 좋아졌지만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님이 다시 한양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선비는 그동안 쌓인 화를 풀기 위해 꾀를 내었습니다. 긴 사다리를 만들어, 원님이 돌아가는 길에 있는 높은 바위 위에 올라갔습니다. 원님이 그 바위 부근을 지나가길 기다렸다가, 그동안 기분 나쁜 일들을 생각하며 원님을 향해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원님은 몹시 화가 났지만, 원님 주변의 누구도 높은 바위에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선비가 자신이 올라온 사다리를 치워버렸기 때문이지요. 원님은 머리끝까지 화가 나도, 그냥 욕을 들으면서 지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후, 선비는 병이 씻은 듯 나았고, 원님에게 못마땅한 감정을 갖고 있던 다른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 속이 시원했다고 합니다.

시묘삼년

오래 전 정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정씨는 산소가 있는 광터에서 *시묘살이를 시작했어요. 인근에 살던 김씨가 오랫동안 지켜보니, 정씨가 1년동안 눈·비가 와도 계속 시묘살이를 하다가, 1년이 지나서야 집에 잠시 다녀오곤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몹시 비가 쏟아져 강물이 많이 늘어났을 때였어요. 김씨는 정씨가 어떻게 집에 돌아왔는지 궁금해서 방법을 물어보았습니다. 정씨는 많은 비로 늘어난 냇물을 건널 수가 없었고, 그저 바라보며 걱정만 하고 있었대요. 그러다 문득 무서운 생각이 들어 눈을 감았다 떴는데 이미 냇물을 건너 있었다고 합니다. 앞을 보니 조금 떨어진 곳에 커다란 호랑이가 물을 털고 있었지요.

이 얘기를 들은 김씨는 호랑이도 정씨의 효심에 감동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날부터 정씨를 위해 먹을 것, 입을 것은 물론 움막까지 지어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정씨는 3년 동안 시묘살이를 무사히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죠. 어느덧 30년이란 세월이 흘러 정씨와 김씨가 죽었지만, 훗날 정씨의 아들이 김씨의 아들에게 은혜를 갚는다고 논 4마지기를 사주었고, 김씨의 아들은 거절하다가 억지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 보답으로 정씨의 제삿상를 차려 주었습니다. 정성껏 제삿상을 차려주는 모습에 정씨의 아들도 감동 받아오늘날까지도 두 집의 우애는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시묘살이: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 묘소 근처에서 지내며 묘소를 돌보는 일



우리 마을 문화유산을 조사해 보세요.



문화유산 이름	
장소	
날짜	
조사한 사람	
조사 방법	
조사 내용	
느낀 점	



다른 지역에 사는 친구들에게 우리 마을을 소개하는 카드를 만들어 보세요.





1. 안창리 2. ③3층 3. ①여의주 4. ②원주 흥법사지, ③김제남신도비 5. 김제남신도비





